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정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한민국정부

정상 여러분, 우리는 인도-태평양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됩니다. 저는 아세안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ASEAN 정상회의 모두발언(2022.11.11)

CONTENTS

Ⅰ 추진 배경 :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04

Ⅱ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 협력 원칙 및 지역적 범위 ·····07

1. 우리의 비전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2. 협력 원칙 : 포용, 신뢰, 호혜
3. 지역적 범위

Ⅲ 중점 추진 과제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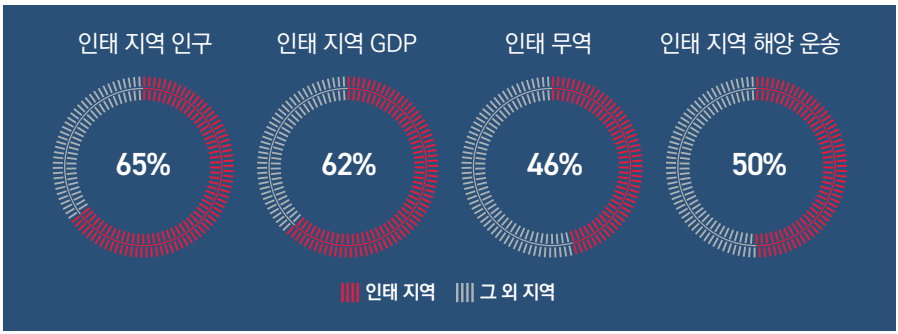
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2.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3.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4. 포괄안보 협력 확대
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6.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7.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8.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Ⅳ 결론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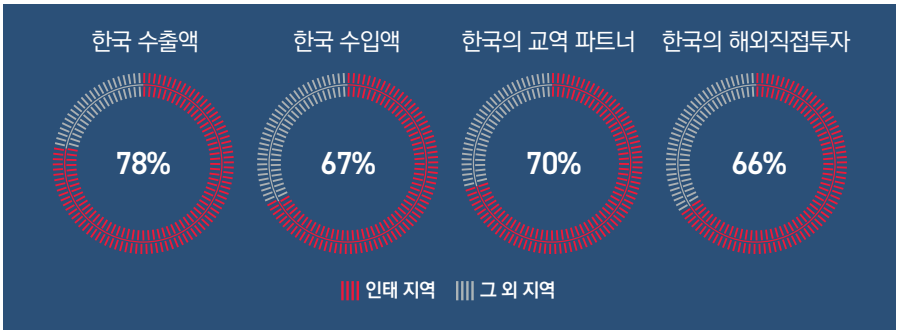
Ⅰ 추진 배경 :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직결된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태 지역은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양 운송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소재하는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이다.

인태지역의 중요성 2020.7월 기준, 출처: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대한민국과 인태지역 2022년 기준,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관세청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미 역내외 주요국들은 독자적인 인태전략을 제시하고 관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고유의 인태전략을 구상해 왔다. 대한민국의 인태전략은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가꾸어 더욱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2021년 기준으로 대외교역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고,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높은 개방형 통상국가이기 때문이다. 이 중 인태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 수출액의 약 78%, 수입액의 약 67%를 차지한다. 대한민국의 20대 교역 파트너 과반수가 인태 지역에 위치하며,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66%가 인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은 대한민국과 인태 지역의 긴밀한 관계를 명확히 드러낸다.

또한, 인태 지역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핵심 해상물류 통로가 다수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무역의 대부분을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며, 이 중 상당량이 호르무즈 해협-인도양-말라카해협-남중국해를 거쳐 이동한다. 특히, 남중국해는 우리나라 원유 수송의 약 64%와 천연가스 수송의 약 46%를 차지하는 핵심 해상 교통로이기도 하다.

최근 인태 지역 내 자유, 평화, 번영을 위협하는 복합적인 도전이 증대되고 있다.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역내 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이며, 최근 일부에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가 도전받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 경제·기술, 가치·규범을 놓고 지정학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태 지역 국가 간 협력의 동인이 약화되고 있다. 역내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군사·안보 분야에서 투명성 제고 및 신뢰 구축 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안보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더해,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배타적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의 분절 등 세계화 거버넌스의 쇠퇴도 목도되고 있다. 그간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인태 지역의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평화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역내외 주요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역내 질서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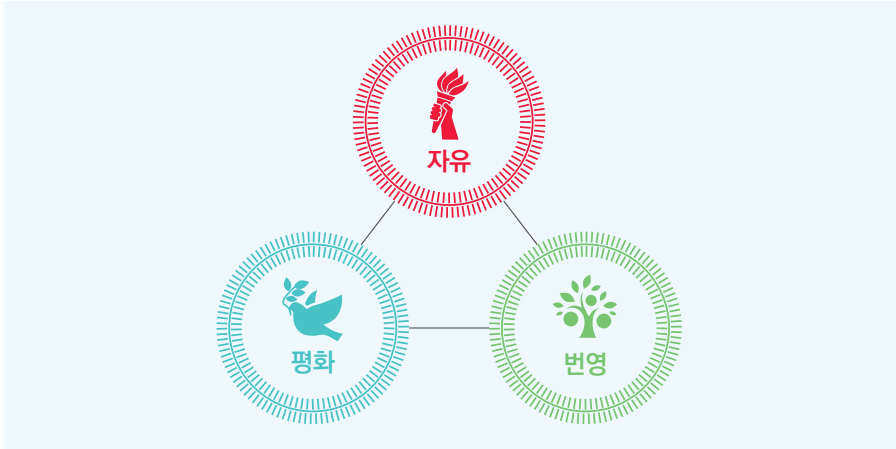
인태 지역의 미래는 역내 국가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도전에 대응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역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부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협력 의제를 적극 발굴하고 역내외 국가 간 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미래 지향적인 인태 지역의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청사진이 될 것이다.

Ⅱ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 협력 원칙 및 지역적 범위

1. 우리의 비전 :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국제사회는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분야 산업을 비롯해 케이팝(K-pop)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에 주목하고 있으며, 그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역내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세 가지 비전으로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와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비전



첫째, 투쟁과 희생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지켜온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인태 지역을 지향한다.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압제와 강요가 아닌 규칙과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지역 질서를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서로의 권익을 존중하고 공동의 이익을 모색하는 조화로운 역내 질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자유·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인태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규칙을 바탕으로 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다.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갈등과 충돌을 줄이고 역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비확산·대테러·해양·사이버·보건안보 등 전통·비전통 안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연합(UN)의 평화 추구 원칙을 재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치체제를 지닌 국가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규칙에 기반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해 나가는 인태 지역을 지향한다. 대한민국은 역내 다양한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대화와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굳건히 지지할 것이다.

셋째, 인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개인, 기업, 국가들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때 역내 번영이 구현된다. 이를 위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무역·투자 네트워크의 연결성과 상호 보완성 제고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협력적·포용적 경제·기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유지·강화함으로써 역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질서 구축에 앞장서면서 경제문제가 과도하게 안보화되지 않도록 공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가 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전개하고, 기후변화와 보건 위협 대응 등 역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회복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꾀하고자, 보편적 가치와 지역 비전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포용적 연대를 통해 역내 모든 국가들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인태 지역을 지향한다.

2. 협력 원칙 : 포용, 신뢰, 호혜

자유, 평화, 번영의 비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 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해 나갈 것이다.

첫째, 우리의 인태 비전은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이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비전과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모든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을 추구한다.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목표로 역내외 국가들과 열린 자세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인도-태평양 전략 3대 협력 원칙

1 포용	2 신뢰	3 호혜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	공고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 추구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가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추구

둘째, 우리는 공고한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를 추구한다.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는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공동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여 역내외 국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동반자가 될 것이다.

셋째, 모든 당사자를 이롭게 하는 관여가 가장 지속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 경제성장, 민주화 등 우리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기술·문화 경쟁력 같은 독자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파트너 국가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한편, 인적·문화 교류를 함께 촉진하는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3. 지역적 범위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은 협력의 지리적 범위와 협력 의제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공동 이익을 기반으로 양자 협력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우리의 협력 원칙에 부합하는 소다자 협력체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중층적이고 포괄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강화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동남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등 인태 내 주요 지역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감으로써 외교적 지평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유럽, 중남미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1) 북태평양

대한민국은 우리가 속해있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호혜적 양·다자 협력을 심화하고자 한다. 또한,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미동맹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었으며,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 사이버공간, 공급망을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추구할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상호 신뢰 회복과 관계 발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인태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는 데 있어 주요 협력 국가인 중국과는 국제규범과 규칙에 입각하여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면서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캐나다, 몽골 등 북태평양 지역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사안별로 공조하고 협력하면서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가치를 공유하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캐나다와는 양국의 인태 전략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 등 경제안보 증진과 규칙 기반 질서 강화를 위한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전략적 동반자인 몽골과는 광물자원과 개발협력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 실현을 위해 호혜적 방식으로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 동남아·아세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우리에게 제2위의 교역(2021년 약 1,765억 달러) 및 해외투자 대상 지역(2020년 약 100억 달러)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해외 지역(2019년 약 1천만 명)이자, 우리 공적개발원조(ODA)의 최대 수원 지역(2020년 약 6.05억 달러 / 양자 ODA 총액의 약 31%)이다. 대한민국은 인태전략의 세부 이행을 위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하였으며, 아세안을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가꾸기 위한 주요 파트너로 간주한다. 앞으로 통상과 기능적 협력을 넘어 아세안에 특화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양자적으로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인 인도네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 전략적 동반자인 태국, 그리고 메콩지역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및 해양지역의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동티모르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통해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아세안은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이라는 인태 지역에 대한 단일 입장을 발표하였다. AOIP는 역내 협력에 있어 아세안의 중심적 역할을 강조하고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등을 협력의 원칙으로 제시하여 동아시아와 인태 지역의 평화, 자유, 번영에 기여할 것을 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아세안과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과 AOIP를 확고히 지지한다.

또한, 아세안의 필요와 우리의 강점을 조화시키고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꾀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한-메콩 등의 협력 재원을 계속 증대할 계획이다. 특히,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남중국해의 전통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 해양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사안에 대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발전을 지향해 나가는 한편, 아세안 각 국가와 양자 관계도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오랜 기간에 걸쳐 정치·경제 협력과 인적·문화적 교류를 통해 형성된 상호 유대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인태 지역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할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될 것이다.

3) 남아시아

동아시아-서아시아 및 대륙-해양 간 교차로에 위치한 남아시아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24%가 거주하며 성장 잠재력이 크다. 대한민국은 중요한 협력 동반자인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증대해 나갈 것이다.

우선, 역내 핵심 국가이자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는 세계 2위의 인구와 IT, 우주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한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이다. 외교·국방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개선하여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등 여타 남아시아 국가들과 교역, 투자, 개발원조 등 경제·개발 외교를 적극 강화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 동반자 관계를 꾀할 것이다.

또한, 환인도양연합(IORA, 2018년 대화상대국 가입),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2006년 옵서버 가입) 같은 역내 소다자 지역협의체와 실질적 협력사업을 추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남아시아 지역 질서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4)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역내 유사입장국이다. 6.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유대를 바탕으로 인태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반자인 호주는 우리와 상호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보유한 대양주 지역 최대 교역 대상국이다. 한-호주 양국은 국방·방산, 안보, 핵심광물, 기후변화 대응,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 의제를 지속 발굴하며 관계를 심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의 제5위 교역 대상국으로 경제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협력 동력을 강화하면서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태평양을 공유하는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와 기여를 확대해 오고 있다. 태평양도서국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기후변화의 도전은 인류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이다. 대한민국은 태평양도서국의 장기 개발전략인 '2050 푸른 태평양 대륙 전략'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를 포함해 보건의료, 해양수산, 재생에너지 문제 등 태평양도서국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유사입장국 간 태평양도서국 협력 이니셔티브인 「푸른 태평양 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PBP))」 협력을 통해서도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5)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우리 인태전략의 지리적 범주와 협력 대상은 인도양 연안과 아프리카로까지 확장된다.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는 전략적 요충지인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24년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륙과의 관계를

한층 격상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2009년 이래 국제 해상 안전 확보와 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증진시켜 왔다. 아덴만 해역에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향후 인도양 연안 아프리카 지역과 해양 협력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돕고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역내 국가별 특색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발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협력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해 있는 환인도양연합(IORA)와의 공조 및 인도양위원회(IOC)와 같은 여타 지역 협의체와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 동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인도양 연안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다져 나갈 것이다.

6) 유럽·중남미

인태 지역에 대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우리 인태전략 이행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다.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영국 및 프랑스와 독일을 포함하는 유럽연합(EU)과 실질협력(가치외교 파트너십)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인태와 유럽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인태 지역 내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지난 6월 우리 정상이 최초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연대를 강화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기여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NATO와의 파트너십은 최근 개설된 주NATO 대표부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전통적인 우방국이 다수 소재하는 중남미 지역도 우리의 주요 협력 파트너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 15개 중남미 국가들과의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자관계를 한층 긴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경제안보 및 교역 증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문제 관련 공조를 위한 협력과 연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 등 태평양동맹을 비롯하여, 메르코수르, 중미통합체제, 카리콤 등 중남미 지역 공동체와 역내 다자 협력 네트워크도 꾸준히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Ⅲ 중점 추진 과제

대한민국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태 지역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1.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지역 질서 구축

자유로운 인태 지역의 실현을 위해, 자유, 법치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을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 연대하여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이다. 또한, 합의한 규칙을 존중하고 이행하며 새로운 분야의 보편적 규칙을 모색함으로써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비전과 협력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광범위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인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중심(hub)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역내 소다자 협의체를 이슈별로 특색에 맞게 활성화함으로써, 인태 지역 내 협력의 동력을 강화하고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공급망 불안정,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국제보건 위기와 같은 새롭게 제기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의 해결에도 유용한 협력 기제이다.

또한,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호 3국 간에도 공급망, 핵심광물, 신흥기술,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역내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잠재력이 충분하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지난 6월 NATO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대한민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회동을 계기로 인태 지역의 가치·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다자무대에서 국제 규범을 지키고 가꾸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유엔의 역할을 지지하며, 유엔 총회와 관련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건설적인 기여를 지속할 것이다.

2.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유엔 헌장 제1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유엔의 주요 목표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고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을 실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법치주의는 유엔 활동의 3대 중추 의제인 평화와 안보, 인권, 개발을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우리나라가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한 배경에도 법치주의 증진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데 기여하였고,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법치주의를 증진하기 위해 국내적, 국제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역내 법치주의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며, 인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들이 국제법 원칙과 유엔 규약을 준수할 것을 지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역내 인권 증진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다. 특히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권을 증진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거버넌스, 선거 관리 분야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해 역내 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

3.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대한민국은 역내 주요국들과 안보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자, 우리와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이다. 특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확대해 평화 수호 역량을 배가해 나갈 것이다.

북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체제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인태 지역 국가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화하고 북한의 역내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는 국제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동시에, 북한과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두면서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들의 비확산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군축·비확산 분야 소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인태 지역의 비확산 규범 공고화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인태 지역 내 군비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역내 대화를 촉진해 나가고자 하며,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역내 위기관리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다자협의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책임 있는 우주 공간의 이용과 우주 군비경쟁 방지에 관한 국제 규범을 마련하기 위하여 우주안보 주도국들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대테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인태 지역의 대테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소다자 및 지역 협력체에서 대테러 협의를 활성화하고 역내 주요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역량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아시아 지역기구(APG)를 통해 자금세탁·테러자금·확산금융 차단을 위한 국제기준의 수립과 이행 노력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다.

4. 포괄안보 협력 확대

대한민국은 21세기의 복합적인 안보 도전과제에 다차원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전통·비전통 안보 위협을 아우르는 역내 포괄안보 협력을 추구할 것이다.

우선, 역내 해양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인태 지역은 해양으로 연결되어 있어 해상 교통로 보호, 해적 퇴치 및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가 긴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요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하며, 인태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한다.

대한민국은 1982년의 유엔해양법 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를 준수함으로써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 이행, 청해부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인태 지역의 해양안보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양영역인식(MDA)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논의에도 참여하여 실시간 해양감시와 정보공유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 또한, 림팩, 퍼시픽 드래곤 등 역내 국가들이 주관하거나 참가하는 다자 간 연합훈련에 참가하여 역내 국가들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고, 양자·다자간 연합훈련을 확대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해군 함정 등 군수물자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과 해양테러 대응과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공조하여 자유롭고 안전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과 해양안보, 해양영역 인식, 해양경제, 해양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역내 안보 현안에 대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차원의 전략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인태 지역의 다자안보 협력질서 구축에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사이버, 보건과 같은 비전통 안보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엔의 국제 규범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역내국들과 양자 사이버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각국의 사이버 역량 차이를 감안하면서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안보 역량이 취약한 국가를 경유한 사이버 위협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건 분야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백신·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건 역량 강화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올해 11월 글로벌 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글로벌 보건 체계 강화를 위해 팬데믹 국제협약 협상과 감염병 관련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 개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6년 이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사이버, 대테러, 비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행해 오고 있다. 앞으로 신흥기술, 기후변화 등 초국경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NATO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쿼드(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도 협력의 접점을 확대하고자 한다. 우리가 강점을 지닌 감염병, 기후변화, 신흥기술과 같은 분야에서 쿼드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협력 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역내 포괄적인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한 지역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경제안보 네트워크 확충

대한민국은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회복력 제고를 위해 역내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역내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규칙 기반 경제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조기경보시스템과 핵심 산업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자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또한, 경제관계를 다변화하고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양자 및 소다자 간 소통과 협력도 증대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국가들과 함께 전략자원의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개방적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참여하였으며 IPEF가 인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체로 발전해 나가도록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또한, 역내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논의에도 선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논의에 참여하고 신규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증진하고 보호주의에 대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인태 지역 경제 협력체계를 조성하는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아울러, 역내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를 증대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인태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통상 규범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은 WTO 복수국 간 전자 상거래 협상에 참여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해 노력하면서, 양자 차원에서도 싱가포르, EU 등 주요 국가들과 함께 공정하고 호혜적인 디지털

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식과 노하우를 인태 지역 국가들과 공유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내 다자 간 통상협력 논의를 통해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세안+3(한·일·중)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논의를 주도하는 아세안과 함께 경제·금융·식량 분야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 안전망을 강화하는 논의에도 참여할 것이다. 또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은 APEC과도 무역·투자 자유화, 혁신·디지털 경제, 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6.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과학·기술 혁신의 글로벌 선도국가인 대한민국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첨단 바이오, 차세대 통신, 우주분야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역내 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역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술은 미래 국가안보와 경쟁력을 결정하며, 그러한 기술이 협력적 국제관계를 촉진하도록 활용될 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역내 질서에 기여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표준화, 기술 규범, 기술 보호 및 인력 양성 등 핵심·신흥 기술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기술 선도국과 협력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유럽, 캐나다, 호주 등과도 기술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주요 디지털 선도국과는 기술 표준의 개발 및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디지털 국제 표준화와 규범

형성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프라하 사이버 안보 컨퍼런스 참여, 한·미 5G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협력 등 개방적이고 투명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역내 국가들이 인권, 법치주의, 표현의 자유 등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인적 자원 양성을 지원하고 이러한 기술 협력을 매개로 역내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의 과학·정보통신기술 역량과 디지털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간 디지털 불평등을 해소하고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경제·사회 분야 취약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 '정보 접근 센터'를 설립하여 디지털 소외 지역의 디지털 연결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태 지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7.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 에너지안보 분야에서 역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지원하고, 초국가적 도전과제에 대한 회복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태 지역 차원의 노력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역내외 국가들과 다양한 형태의 소다자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에 기여해 나갈 것이다.

먼저 탄소중립을 지향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 인태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역내 탄소시장 발전,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 등), 녹색해운, 메탄 감축 분야의 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역내 국가들과 함께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자 한다.

역내·외 국가들과 양·다자 간 다층적 공조를 통해 인태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를 통해 아세안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공조하고 인태 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야기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국제사회가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함을 보여준다. 화석연료와 같은 전통에너지 자원이 전략무기화되어 가는 추세에서 청정에너지 전환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인태 지역의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탈탄소화를 향한 청정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발전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인태 지역에서 원자력 협력 체제를 공고히 구축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은 현재 가장 강력한 고효율 청정에너지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갖춘 원자력 발전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원자력 시장에 적극 진출할 것이다.

동시에 원자력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를 위한 역내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 교육·훈련 과정을 국내 교육·훈련기관에 유치하고,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와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한다.

아울러,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겨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SMR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규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세계 인구의 20%,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한·일·중 3국 간 협력은 인태 지역의 안정을 구축하고 번영과 평화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한·일·중 정상회의를 재개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의 역량과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의 새로운 기회와 동력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녹색 전환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한·일·중 3국의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과 한·일·중 협력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자 한다.

8.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경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여 외교를 통해 인태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인태 지역의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역내 국가들의 열망에 부응하여 이제까지 축적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태 지역은 우리의 27개 개발협력 중점 협력국 가운데 13개국이 위치한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인태 지역의 개발협력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우선, 아세안은 양자 ODA의 31%를 차지하는 우리의 최우선 협력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기후변화, 스마트시티, 교통 등 협력국 수요와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여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해양 환경, 기후변화, 보건, 디지털·사이버 분야에서 미국·호주·뉴질랜드·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 공여국들과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건위생, 교통, 지역개발, 에너지 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도서국을 대상으로 그린(green) ODA를 추진하여 태평양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 농업, 보건, 전력,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강화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협력 대상국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인 보건, 기후·환경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보건 분야에서는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의 연구개발, '코로나19 기초보건기술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출범한 국제공조체제(ACT-A)' 이니셔티브 3억 달러 추가 기여, 글로벌펀드 기여 확대로 글로벌 보건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개도국의 보건·의료 개발 계획 수립과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을 연계한 지원을 통해 인태 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그린(green) ODA 비중을 2025년까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태평양도서국을 중심으로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과 혁신적 녹색기술을 공유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협력 대상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는 주요 공여국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함으로써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인태 지역 관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9.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인태 지역의 맞춤형·쌍방향 교류를 증진할 것이다.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미래 세대 간에 상호 신뢰와 우정을 쌓는 것은 건강하고 성숙한 국가관계를 이어나가는 근간이 되며, 문화교류는 인태 지역 내 젊은이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역사 인식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매력적인 방식이다. 다양한 문화·인적 교류는 인태 지역 내 미래 세대 간에 튼튼한 연대의 기초를 닦아줄 것이다.

대한민국은 소지역 및 대상 국가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공공외교를 추진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특장점을 지닌 디지털, 문화 분야에 특화한 맞춤형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K-pop 등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 게임 등 한류 문화(K-culture)의 창의적인 컨텐츠에 대한 전 세계적인 호감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매개로 인태 지역 내 다양한 문화와 공감하고 교류하면서 협력적 공공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통 환경의 일상화에 발맞춰 디지털 공공외교 역량과 이를 통한 소통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인태 지역 국가들과 문화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문화·경제·사회적으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유대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Ⅳ 결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은 글로벌 지구촌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어 매우 긴요하다. 인태 지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지속적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역내외 국가들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그간 인태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 온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함께 실현해 나갈 때, 인태 지역은 다양한 국가들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번영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수행할 의지와 역량을 지니고 있다. 730만 재외동포들도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여러 나라의 인태 전략·비전·구상에 포함된 역내 목표와 협력 원칙을 역내외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정부의 각 관련 부처는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인태 지역 내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인태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아세안 연대구상'과 같은 소지역별 정책 구상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외교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처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정부